

 **통학로 안전을 위한
학생자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의**



지난 7월 10일, 학생자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1차 회의가 5학년 2반 교실에서 진행되었다. 학생자치회 학생들은 다음 2차 회의까지 통학로에서 안전/쾌적, 위험/불쾌한 사진을 찍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통학로의 위험한 장면을 안전하게 바꾸는 방안과 불쾌한 장면을 쾌적하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고 정리하여 2차 회의 시간에 적어오기로 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포천시의회나 관할 관청에 전달하여 통학로 안전을 개선하는데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통합지원반의 두 번째 친구초청시간**

7월 11일에는 통합지원반 학생들이 친구초청 두 번째 시간으로 수어노래 공연을 했다. 통합지원반 학생들 7명이 각 반의 친구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전자 캔들을 켜놓고 최근 가장 감사한 일에 대해서로 이야기 나누었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여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감사 나누기 시간에 이어 '년 할 수 있어'라는 노래에 맞추어 수어동작을 배우고 자원하는 학생들이 앞에 나와 공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초청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다음 친구초청시간은 연극대사를 함께 연습해 보는 시간으로 계획할 예정이다.